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 태극기 꽂는 공무원들 5·18민주화운동 41주기 기념식을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부구청 신규공무원과 제27기 청년간부회의 직원들이 손태극기를 열사 묘역에 꽂고 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해야”

광주 지역 결식아동 1만9000여 명 타지자체 대비 낮은 급식단가 지적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서 비롯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지역 결식아동은 1만9000여 명으로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급식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광주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식 5000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원(초등학생 기준)보다 1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쏘자랍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경우, 현실적인 외식비(통상 1식 7000원 이상)의 한계에 부딪혀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광주에서 쏘자랍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380여 곳으로, 이 중 편의점이 무려 720여 곳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광주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직으로 핑계만 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인 아동복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 부처 역시 결식아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고교 대규모 감염 기로 ‘긴장’

7개 학급 14명 무더기 확진

단일 학교로는 광주 ‘최다’

PC방·학원 등 동선 다양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7개 학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감염 경로가 안갯속이고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들이 많아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광주 2451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13명(2454~2466번)이 추가 확진되면서 해당 학교 확진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월초, 광주지역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단일학교 확진자로는 이번이 가장 많다.

광주 2451번은 앞서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444번의 자녀로, 자영업자로 알려진 2444번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증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고교 확진자 14명 모두 학생들로, 고3 수험생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1학년들이다. 3학년 1개반, 1학년 6개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많게는 한 반에 4명, 적게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남녀 공학으로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9명이다.

재학생 922명과 교직원 101명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330명과 담임교사 7명은 만일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됐다.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에 이어 질병청과 합동으로 심층 역학조사에 나서고 선별진료소도 긴급 설치했으나 ‘학교 밖 동선’과 접촉자들이 워낙 많아 대규모 확산, 즉 수퍼 감염으로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확진자가 2개 학년에 걸쳐 7개 반에서 동시에 발생, 산발적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동선도 학교 인근 PC방과 동전노래방, 학

원 등 다양한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가족 감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모들의 직업이 다양한 데다 초등생, 중학생 형제 자매도 많아 어린이날을 전후로 가정 내 전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 4일에 이어 6일에도 중간고사가 예정돼 있었고, 8일에는 개교기념일, 12일엔 이 학교만의 독특한 특색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사일정상 학생들의 접촉이 잦고, 이 과정에서 방역의 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현재까지 나온 확진자들의 바이러스 검출량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온 점은 n차 감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희망적 단서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교생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심층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초기 대응에 올인하고 있지만, 접촉자가 많고 가족 간 감염과 같은 n차 전파도 우려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6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내걸린 어버이날 고향집 방문 자제 호소 현수막. (사진 제공 = 전남 보성군)

“어버이날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보성읍에 고향집 방문 자제 현수막 걸어...인근 고흥·순천 등지에 환자 급증

“이번 어버이날은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최근 전남 동부권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보성군이 어버이날 고향집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8일 어버이날 앞두고 자녀들의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보성읍에 내걸었다.

보성군은 인접 지역인 고흥과 순천 등지

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르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고향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성=김덕순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